다산포럼



언론인

"당신의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 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 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 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

근하신년,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가까운 친구들에게 보낸 연하장에 적은 문구들이다. 앞의 것은 아일랜드 켈 트족의 기도문을 짜깁기한 것이요, 뒤의 것은 불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뽑은 것이 다. 미처 인사를 올리지 못한 분들께는 이 글로 연하의 인사를 대신할 수 있기를

2019년은 기해(己亥)년, 돼지의 해 다. 우리 민족에게 돼지는 풍요와 다산,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가축으로 일 찍부터 각인되어 왔다. 잔칫날 혹은 고사 나 굿을 지낼 때 돼지고기와 그 머리는

2019년, 우리 화해하고 통합합시다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품목이었고, 돼지 꿈을 꿨다면 그것은 대길(大吉)과 행운 을 예감하게 하는 길몽으로 해석되었다

흘러가는 세월에 한 해라는 칸을 마련 하고, 새해를 특별히 축하하고 기리는 것 은 무엇인가 새롭게 결심하고 다시 시작 하기 위함일 것이다. 개인으로서건 공동 체로서건 어제와는 다른, 이제까지보다 는 나은, 내일을 창조·영위하기 위한 갱 신의 몸짓인 것이다.

2019년은 여러 면에서 이정표적인 한 해가 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우리 국 민의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로 선진국에 아주 가까이 진입하는 해요, 무엇보다 3. 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기미년 3·1 독립선언문은 언제 읽어 도가슴 벅차다. "오등(吾等)은자(慈)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 민임을 선언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 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 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 의 정권(正權)을 영유케 하노라."

3·1 만세운동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 게 한 뿌리요, 정신의 원류요, 우리가 끝 까지 지키고 가꾸어 나아가야 할 가치요 지향이다. 독립과 자주, 민주와 공화, 자 유와 평등, 양심과 도의, 진리와 정의, 세 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대한 한민족 의 역할과 책임까지를 스스로 다짐하고

세계만방에 알린, 일찍이 민족사에 없었 던 장엄한 선언이자 운동이었다. 과연 3. 1운동은 밖으로 중국의 5·4운동과 인도 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친 세계사적 사 건이었고, 안으로 우리 민족 공동체의 질 적 전환을 이룩한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3·1 만세운동의 과정에서 숨진 사람만 7509명, 부상자가 1만5961명, 투옥된 사람은 4만7000여 명에 이르렀다. 총독 부 기록으로도 전체 인구 1679만 명 중 106만 명이 참여한 전민족적 거사였다.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까지 확산됐으니, 그 모든 지역이 다 운 동의 중심지였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 여했기에 민족 전체가 주역이었다. 3·1 운동으로 분출된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 는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고 왕정 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 께 민주공화정을 국체로 선언하기에 이

3·1 기미 독립선언문을 처음부터 끝까 지 읽어 본 사람이라면, 선언문의 공약 삼장 뒤에 '4252년 3월 1일'이라 못 박 아 선언한 그 날짜를 기억할 것이다. 이 선언문에서는 개천절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나 는 이것으로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을 끝 낼 것을 제안하고 싶다. 우리에게 개천 절 하나면 족하지 아니한가.

3·1 만세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 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 니 해도 그때의 성충으로 우리 모두가, 온 민족이 하나 되는 일이다. 그것을 위 해서는 먼저, 지역으로 나뉘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계층으로 갈등하는 우리 대한 민국 공동체 안의 화해와 통합이 시급하 다. 남북 민족의 화해와 통일도 중요하 지만 그에 앞서 우리 내부의 갈등과 대립 의 해소가 우선이다. 모든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초점도, 3·1운동과 임시정 부 100주년 기념사업의 방향도, 우리국 민 내부의 화해와 통합에 맞추어져야 한 다. 고해와 용서, 해원 상생과 화합의 길 을 열어 나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통일을 향 한 발걸음도 우리 안의 화해와 통합을 통 해서만 위대한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리 안의 화해 와 통합이 남북문제를 풀어 나가는 입구 요 출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안의 화 해와 통합을 이루어 내지 못하면서 어떻 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화해와 통합' 그것이 새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고 또 화두가 되어 야 한다.

새해 벽두에 나는 외치고 싶다. "우리 화해하고 통합합시다."

社 說

민간공원 개발 공공성 원칙 지켜 나가야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추진되는 광 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원 구역 해제 시한이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 교체와 학생 수용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도시공원 25곳 가운데 15곳은 시 재정 1629억 원을 투 입해 매입하고, 10곳은 민간사업자가 일 부를 개발하되 나머지는 시에 기부채납 하는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1단계는 평균 개발 면 적을 22.5%, 면적이 넓고 시민 영향력이 높은 2단계는 8.6%로 대폭 축소하기로

이 같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 조성 계획 결 정과 용도 지역 변경 고시, 토지 수용 등 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수랑• 마륵·봉산·송암 공원등 1단계는 우선협 상 대상자를 선정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뒤늦게 불거진 학생 수용과 분양가 공개 문제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중앙・일곡 ·중외·송정·운암산·신용(운암) 공원 등 6개 공원, 7개 지구가 포함된 2단계는 중 앙공원 1·2지구 우선 협상 대상자를 교체 하면서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도시공원 해제 시한이 내년 7월인 점 과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광주시가 시간 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개 발 업체는 시간이 갈수록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시민단 체와 전문가 및 공무원이 참여한 민관 거 버넌스를 통해 이끌어 낸 개발 최소화를 통한 공원 보존, 공공성 확보 등의 원칙 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가 커지고

도시공원은 광주의 허파이자 시민의 자 산이다. 광주시는 민관 협의 체계를 재구 축해 공원 개발이 이윤이 아닌 공공의 이 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5·18 계엄군 유공자 조작' 어디 한둘이겠나

시민을 향해 총을 쐈던 계엄군이 도리 어 시민군의 총에 맞았다며 국가 유공자 가 되는 이런 기막힌 상황이 도대체 어떻 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5·18 민 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중에는 군사 정권 때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이들이 많다. 한데 이들의 심사 서류를 살펴보니 왜곡 ·조작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최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상확인서에 따르 면 5·18 당시 11공수부대 조 모 대령은 '80년 5월24일 폭도의 기습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심 사 서류를 제출했다. 조 대령은 시민군 기습에 부상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유 공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그날 조 대령이 소속된 11공수 부대 및 보병학교 군인들은 서로를 시민 군으로 오인해 총격을 주고받았었다. 조 대령 스스로도 1994년 검찰 조사에서 다.

'오인 사격으로 오른쪽 팔에 부상을 입었 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 국 폭도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는 유공자 신청 서류와 달리 진압군끼리 오인 사격 으로 부상을 입은 점을 자인한 셈이다.

이는 당시 군사정부가 계엄군 출신 유 공 신청자들을 심사하면서 왜곡과 조작 을 검증하지 않았거나 눈감아 준 것임을 말해 준다. 여기에는 심사 소홀뿐만 아니 라 정부의 몰역사적인 인식도 더해졌다. 일레로 당시 국가보훈처의 계엄군 보훈 심사 서류에는 5·18을 '광주사태' 로지칭 하고 있으며 국방부 또한 최근인 2016년 까지도 공문서에서 시민군을 '폭도'라 부 르고 있다.

어찌 됐든 일부 계엄군이 심사 서류를 조작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정황이 드 러났기 때문에 이제 단호한 조치가 필요 하다. 서류 임의 조작이 한두 명에 그칠 리 없는 만큼 철저한 전수조사로 이를 밝 혀내고 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

NGO칼럼

3·1운동 100주년엔 할머니들께 사죄와 배상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소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집안 형 편은 어려웠다. 아버지가 천자문을 가르 쳐줬지만, 소녀는 학교에 다니고 싶었 다. 1939년 아홉 살 때 입학의 꿈이 이뤄 졌다. 영특했던 소녀는 공부도 잘 하고, 달리기도 잘해서 곧잘 상을 받았다. 공 책·연필 값은 거의 안 들었고, 줄곧 급장 (반장)을 도맡았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은 커져만 갔다.

6학년 5월 어느 날, 교장선생님이 교 실로 들어와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 고, 중학교도 보내준다"며 "가고 싶은 사 람은 손을 들라"고 했다. 소녀는 일본으 로 갔다.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 열네 살 소녀는 하루 종일 서서 전투기에 페인트칠을 했다. 일은 힘들었 고, 늘 배가 고팠다. 독한 시너 냄새 때문 에 머리가 아팠다. 중학교는 언제 가냐

고 물어보면 기다리라고 했다. 왜 월급 을 안 주냐고 물어보면 다 저금하고 있으 니 걱정 말라고 했다. 소녀는 강제 동원, 강제 노동 피해인

줄도 몰랐다.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왔지 만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은 짧았 다. 오히려 소녀는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됐다. 스무 살에 어렵게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근 로정신대를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했고 폭력을 일삼은 끝에 집을 나가버렸다. 여 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이야기다. 소박한 꿈이었던 선생님도, 단란한 가정생활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일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부족 한 전시 노동력 충당을 위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 린 소녀들까지 군수 공장에 동원했다. 10대의 소녀들은 매일매일 가혹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1944년 12월에 발생 한 도난카이(東南海) 대지진에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공부는커녕 임금 한 푼 받지 못 했다. 해방을 맞아 고향에 돌아온 여자 근로정신대원들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오인으로 가족의 외면과 폭력, 이혼에 노 출됐으며 주변의 손가락질까지 감당해 야 했다.

수많은 양금덕들의 목소리는 1990년 대 들어서야 가느다랗게 새어 나왔다. 피 해자들과 유족들은 지원 단체와 양심적 인 일본인들의 도움으로 전범 기업을 상 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2018년 11월 29일 마침내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일본 나고야지방재 판소에 제소했던 소송으로부터 18년 6개 월,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 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이 두 마디 선고에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 이 판결을 듣기까지 소녀들은 구순 언저리의 할머니가 됐다.

외롭고 지난한 노력 끝에 역사적인 승 소 판결을 받았으나 사죄와 배상은 아직

일본 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말 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자

기 나라 기업들에게 개별 대응을 하지 말 라고 지시하고 있다. 국제법에서도 용납 되지 않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이자 명백 한 강제 노동 금지 협약 위반인데 일본 정부는 왜 큰소리를 칠까? 최근에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게는 사죄하고 배 상했으면서 왜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는 이토록 강경할까?

뉴스를 통해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 판 결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양금덕들이 있 다. 하지만 언제까지 고령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만 하는 가. 이제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던 정 부가 답해야 한다. 재판 거래, 사법 농단 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킨 것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막중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피해자들이 법정을 드나들게 해 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은 이미 해야 할 몫을 초과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적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 로 온 국민이 일어섰던 3·1운동 100주년 이다. 피로써 나라를 되찾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돌려줘야 할 때다.

無等鼓 🥠

얼마 전 이태리 여행 중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St Peter's Basilica)을 보고 왔다. 예수가 죽은 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던 베드로는 현재 대 성당이 있는 언덕에서 64년 로마 네로황 제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됐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콘스탄 티누스 대제가 324~349년 베드로의 무 덤 위에 바실리카식 성당을 지어 주었 다. 그러다 1506년엔 교황 니콜라스 5세 가 재건축을 명했고, 이후 120여 년 동안 콜로세움이나판테온에

서 수많은 자재와 조각 품을 가져와 대성당을

지었다.

로마 가톨릭교의 정신적인 수도인 성 베드로 대성당은 로마 가톨릭 건물 중 가 장 규모가 크다. 깊이 218m, 높이 137m , 총 면적 2만2067㎡. 기둥 778개에 제 단 44개, 모자이크 135개, 동상 395개로 구성돼 있으며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다.

성당의 지붕인 쿠폴라(돔)는 1547년 부터 대성당의 건축에 끊임없이 정진했 던 미켈란젤로에 의해 설계됐으며, 그의 제자인 쟈코모 델라 포르타가 1590년에 마무리됐다.

외관 못지않게 내부도 웅장하고 화려한 데 특히 성당 내부에 막 들어서면 오른쪽 에 미켈란젤로의 걸작 '피에타' (Pieta) 가 보인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 가 성모의 팔에 안긴 모습의 조각으로 미 켈란젤로가 24세 때(1499년) 제작한 것 이다. 그의 여러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서명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성당 지하 무덤 출구 앞에 있는 성 베드로의 청동 좌상은 13세기 플로렌스 출신의 조각가 아르놀포 디 캄비오가 만 들었다.

특기할 만 한 것은 신 성 베드로 대성당 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방문객들의 입맞춤으

> 로 베드로 좌상의 오른쪽 발가락이 거의 다 닳아 버렸다는 점이다. 중세부터 이곳 에 다녀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 준다.

> 신도보다 관광객의 방문이 훨씬 더 많 다는 베드로 성당의 입장 수입 또한 상상 을 초월할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성당을 둘러보고 나오는 마음 한켠은 어두웠으 니, 이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약탈과 노예의 희생이 있었겠나 하 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 > /박지경 서울취재본부 부장

기

고

문화가 흐르는 광주천 조성 방안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역사적으로 대도시는 큰 강을 끼고 있 는 곳에 발달하여 왔다. 이는 육로가 발 달하지 못했던 시절 강이 사람과 물자의 중요한 수송로였기 때문이다. 광주는 남 부 지방의 거읍(巨邑)으로 군사적 행정 적 요충지이기는 하였지만, 큰 강을 갖 지 못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충분한 수량의 확보는 예로부터 지 역 목민관의 중대한 현안 과제가 되었으 며,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이 조선 초기 경양방죽의 축조이다. 광주천의 상류와 지천인 동계천에서 유입시킨 물을 가둔 경양방죽은 농업용수의 원천이자 도심 속의 아늑한 휴양 공간의 기능도 수행하

였다. 풍부한 유량을 가진 강물은 도시 환경 의 미관을 증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시 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여유로움을 자 아내는 역할하게 된다. 현재 광주천은 무 등산 서쪽 사면 2~3곳의 계곡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전부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는 하천이 고갈되는 등 수량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 이러한 수량 부족을 해소 하기 위해 광주천 하류의 물을 대형 펌프 로 상류까지 퍼 올려서 수량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적인 수량 부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천 상부의 계

곡에 수천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간이 수원지의 건설이 심도 있게 검토되었으 면 한다.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문화가 흐르는 아름다운 광주천이 되기 위해서는 사시사철 맑고 깨끗한 수질과 충분한 수량을 유지하는 일이 관건이다.

현재 광주천은 하천의 좌측과 우측의 둔치를 따라서 산책로를 겸한 자전거길 이 형성되어 있고, 하천의 표고에 따라 군데군데 보를 설치하여 구간구간 일정 한 수위의 유지와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좀 더 물이 많이 흐르고 산뜻한 환 경을 가진 광주천이 되기 위해서는 하상 의 정비와 둔치 조경 등의 2차 종합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상의 정 비는 강폭이 지나치게 협소한 곳은 둔치 의 너비를 줄여 확장하고 구간에 따라 모 래톱이 형성되는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 하되 수위는 0.5m 정도 높여야 한다.

광주천의 생태 환경의 정비와 함께 둔 치의 곳곳에 간이 운동 시설을 확충하 고, 하류 지역의 너른 하천 부지는 무성 한 갈대밭으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다 양한 활용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즉 대 규모 시민 체육 공원을 조성하여 산책과 조깅은 물론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등과 개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편으로는 자연 체험 학습장을 설치하여 시민 학생들이 채소나 식물들을 가꾸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류 지역의 체육 시설 설치는 홍수에 취약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홍수 예상 일수 가 그리 많지 않으며 한강시민공원처럼 홍수를 대비하여 전천후 시설로 조성하 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 각되어진다. 문화가 흐르는 광주천이 되 려면, 선행적으로 생태와 환경에 대한 정 비와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궁극 적으로는 광주천을 활동의 거점으로 한 다양한 환경과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먼저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환 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 생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 컨대, 광주천 10km 도보 탐사, 광주천의 수중 생물 관찰, 광주천 정화 봉사 활동, 광주천 둔치 화단 가꾸기 등의 체험 행사 들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 로 광주천을 테마로 한 문화 행사 및 교 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천 하류에 개설이 논의되고 있는 체육 공원 의 광장에서 하절기의 야외 야간 공연이 나 영화 상영 등을 비롯하여 광주천의 역 사와 문화를 확산하는 인문학 강좌의 개 설도 요구된다.

아울러, 항상 풍족한 물의 확보를 간 절히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여, 광주를 상징하는 호수였던 '경양방죽'의 복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인 해 원형 복원은 불가한 상황이나 치밀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1만6500㎡ (5000평)~3만3000㎡(1만 평)정도의 축소 복원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광주 는 '불(火)의 형국'에 해당하는 도시여 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만한 넉넉한 물 이 필요하다는 명리학자들의 의견이 오 래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맑고 깨 끗한 물을 품은 호수는 시민들의 정서 순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편집국안내 ⟨FAX 222-8005⟩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 X 222-0195) 과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치 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42 육 부 220-0697 ※구독료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